

## 언제나 자리바꿈 가능

김소원

예술가에게 ‘형식’의 탐구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날짜표기, TV모니터, 무대, 물방울, 해골, 마릴린 먼로, 촛불 등의 소재가 각각 어떤 작가의 이름과 즉각적으로 연결 된다면, 그래서 그 작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대체로 우리는 이들을 예술적 완성도를 이룬 작가라 부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작가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나, ‘호랑이’구나 하는 순간 ‘양’으로 바뀌며 변화의 주기가 감히 쫓아가기 어려운 속도로 바뀌어버린다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평가는 당연히 냉혹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원미 작가의 ‘갈지자’ 행보는 그의 지지자들에게조차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그녀를 미술계에 각인 시킨 것은, 미니멀하거나,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팝적인 현대미술의 주된 흐름 속에서, ‘때 아닌 역사화?’, ‘젊은 작가의 역사화?’와 같은 즉각적 반응을 촉발한 ‘Black Curtain’ 시리즈일 것이다. 죽음과 공포의 테마, 배경과 피사체간의 뚜렷한 대비가 담긴 ‘Facing’ 시리즈와의 연속성도 찾을 수 있는 ‘Black Curtain’ 시리즈는, 6.25 전쟁, 여순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어두운 한국역사 속 장면들을 주로 흑백이나 절제된 모노톤의 강력한 명암대비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본격화된 ‘카니발 헤드’ 시리즈는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양상을 보인다. 주제의 원천적 뿌리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Facing’이나 ‘Black Curtain’ 시리즈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속성이 끊긴 듯하다. 색채는 팝콘이 튀겨 나오듯 절제나 억제 없이 터트려져 있고, 인체 안면의 묘사는 애초에 망자나 영적인 존재를 그린 듯 뭉개져 있다. 이전 시리즈들이, 공포, 불안, 폭력성을 정적 가운데 응축했다가 폭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카니발 헤드’ 시리즈는 발산하는 에너지 그 자체이며, 마치 광란의 락 페스티벌과도 같다. 이번 전시 신작들은 21년도 시리즈들로부터도 또 다른 양식적 변화를 보인다. 꼭꼭 눌러 새긴 붓질들, 그리고 다시 구상적으로 돌아온 이미지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이번 신작들 안에서도 양식적 통일은 없다는 점이다. 양식은 최소 2~3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서로 다른 시기에 그려졌다 해도 납득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무 어지러운가? 서원미 작가의 전시와 전시, 작품과 작품 사이 양식적 간극은 매우 심도 높은 맥락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작가가 작업적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결과라 판단하고 작품 앞을 속히 떠날 수도 있다. 혹 누군가는 이런 작업적 방향이 틀리다고 여기거나, 기량이 더 요구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속전속결, 이것이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속도의 미학이므로 감수해야 할 일일지 모른다. 서원미 작가의 전후사정을 살피는 것, 즉 작업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녀의 작품에서 보이는 그대로, 아니 그녀가 보여주는 그대로 바라 볼 준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되어있는가? 라는 질문과 상통한다. 더 정확하게는, 작품 하나하나, 시리즈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의 요청이 아니라, 종횡무진 변화하는 작업적 행보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이번 전시의 기본 테제인 ‘숨바꼭질’은 어쩌면 그간 온갖 단정적 해석과 자의적 판단에 둘러싸여 온 작가의 작업적 피로도와 저항을 내보이며, 내내 읊조리던 작업적 근간을 더 크게 외치는 행위일 수 있다. 작가는 ‘숨바꼭질’을 작품 속 테마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작업적 태도로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이 전시장에서 관람자가 보는 서원미의 신작들 속에 ‘숨바꼭질’ 주제의 주요 작품들 뿐 아니라 일관된 하나의 형식으로 간추릴 수 없는 이번 신작들 간의 간극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훌륭한 작가’란 모름지기 ‘일관된 자기 양식의 수립’을 이뤄야 한다는 기준이 예술계에는 있고, 그것은 매우 강력하며 유효하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에게 도저히 하나의 틀로 붙들어 맬 수 없는 다채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나중이 아닌 지금 동시에 다 표출해 내고 싶은 열망과 양식적 레퍼토리가 있다면 그것을 막을 명분은 무엇일까?

어쩌면 분열적일 수 있는 이 예술가의 행보는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부캐라 부르며 놀이로 즐기는 지금 시대의 보편적 정서를 누구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훌륭한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솔직한 예술적 열망과 아이디어를 애써 누르고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전략이 존재한다면, 그 전략 자체가 클리셰라고 여기는 듯 과감한 실천적 행보를 이어가는 대담 솔직함이 보인다. 자기 내면과도 계속 싸우며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는 서원미 작가는 너무 젊은 나이에 양식적 통일성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울인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도리어 자기복제를 일삼는 나태하고 속물적인 창작자라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다. 예견된 피곤함과 출혈을 애써 선택하는 서원미 작가는 이런 지점에서 잔다르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들을 예술가라 부르고 싶다.

이 숨바꼭질 속에서 심한 어지럼증 혹은 저항을 느끼는 관람자라면 부담 없이 ‘못 찾겠다 꼬꼬리’를 외치면 된다. 초기 설정 값 상 슬래 자리이므로. 그리고 작가(숨는 자)와 자리바꿈을 하면 된다. 그러다 지치면 또 다시 자리를 바꾸면 된다. 숨는 자와 쫓는 자의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계를 풀 주문이 존재하므로.